

셋째주 :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은 기본 신학 세번째 공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

첫날에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에 대하여, 둘째날에는 중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본 신학 세번째 공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실 때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하여 죽음에 있던 우리에게, 제일 먼저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양심의 회복으로 인한 윤리 의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나?

요한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And this is life eternal, that they might know thee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thou hast sent.

영생은 eternal life 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요 5:26; 요일 5:11).

우리 말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know) 것(요 17:3)” 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 는(=know) 뜻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γινώσκω**, *ginōskō*, *know*¹입니다. 이 말은 알려진 대상과 아는 사람 간의 관계를 지시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라는 의미를 **γινώσκω**는 내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안다고 할 때 *know* 와 *understand* 가 있습니다. *understand* 는 이해하여 아는 것이나, *Know* 는 그냥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know* 입니다. *understand* 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압니다.

왜?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갈 4:6 에 이르기를 “너희가 아들 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 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생이 자신 속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어 자기의 아버지를 알 듯, 영의 아버지를 압니다(*know*).

그러면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과 하늘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땅에는 성황당신, 지신, 목신등 많은 신이 있고, 하늘에는 옥황 상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참하나님이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인생과 매일반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서 신이라고 붙여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INFINITY) 하시고 무소부재(omnipresence), 전지전능(Omniscience and omnipotence), 초월적(TRANSCENDENCE)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된 신은 유한하며 비초월적이며 무소 부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보다 훨씬 강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Zoe Aionion)**’ 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위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그냥 압니다. *understand* 가 아닌 그냥 *directly know* 한다는 것이지요.

¹. In the NT *ginōskō* frequently indicates a relation between the person "knowing" and the object known; in this respect, what is "known" is of value or importance to the one who knows, and h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e.g., especially of God's "knowledge," 1 Cor. 8:3, "if any man love God, the same is known of Him;" Gal. 4:9,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and New Testament Words

How?

보혜사 성령님은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요 15:26 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II.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1. 영의 기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영의 기능들이 대단히 활발 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선,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가 되기 위해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직관 (intuition), 영교 (communion), 양심(conscience)으로 구별 됩니다.

1.1 직관(Intuition)

마가복음 2: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
(헬 pnuma=spirit)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마가복음 2 장 1 절-12 절에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중풍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실 때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논하기를 “참람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합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님께서 곧 중심(헬 pnuma=spirit), 영에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마음에서 아신 것이 아니고 영에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으로 추리해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immediately 그 영에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작용들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 나면 영의 기능이 활발해 직관이 왕성해집니다. 이 직관에 의해 여태까지 경험한 적도 없는, 공부한 적도 없는 영적 사실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에서 탄생 하셨다, 하나님은 영적 아버지이다 등등입니다. 이런 지식을 직관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 직관은 성령과 동떨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일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 :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조명 사역과 직관의 작용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
가며, 지상의 누구보다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 영교(Communio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려 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 :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 Cor. 1:9 (KJV)

God is faithful, by whom ye were called u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요한일서 1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귌이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귌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없이는 상대방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 :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깊은 경지에 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 :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가요?

교제의 수단은 말입니다. 교제의 수단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양심(Conscience)

양심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For when the Gentiles, which have not the law, do by nature the things contained in the law, these, having not the law, are a law unto themselves:

로마서 2 :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¹⁵Which shew the work(2041) of the law written in their hearts, their conscience also bearing witness, and *their* thoughts the mean while accusing or else excusing one another;)(KJB)

여러 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양심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창조시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이 그것을 고소하고 송사함으로 그것이 죄(罪)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예>

창세기 3 장 1 절-10 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 : 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 : 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도 아담과 이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죄를 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낫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의 작용입니다. 양심이 그들 안에서 죄를 지었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처벌이 두려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으나,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고, 서로에게 부끄러워져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가리워 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자력 구원적 종교는 이 죄지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보자 하는 인간의 양심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런 노력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금방 시들어 없어지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종이와 같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갈수록 죄는 점점 많아지고, 양심의 증거에 대해 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게되지만 모세의 율법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양심의 증거를 계속 외면함으로 양심이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상태, 즉 양심에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2 절은

디모데전서 4 : 2 자기 양심이 확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확인” 맞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알아 봅시다.

1.4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 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은, 행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만 지은 죄나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죄에 대하여는 속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9 에서는

히브리서 9 :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Which was a figure for the time then present, in which were offered both gifts and sacrifices, that could not make him that did the service perfect, as pertaining to the conscience;

심상=양심=conscience

“짐승의 피로써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1 은

히브리서 10 : 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 of the things, can never with those sacrifices which they offered year by year continually make the comers thereunto perfect.

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9 : 14 은 말하길

히브리서 9 :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면,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 지고, 양심의 기능이 활발해져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중생한 사람의 양심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양육되어야 합니다.

III. 분리 (Penetration)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시면 우리의 윤리 의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4 :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 4:12 the word of God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it judges the thought and attitudes of the heart.

히브리서 4 : 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영의 작용이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 중생한 신자가 먼저 경험하는 일이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말은 첫째는 세상 윤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분리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옛사람적인 것과 새사람적인 것이 분리된다는 것, 즉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1 세상 윤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대치

첫번째 윤리 의식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발생 합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윤리적 의심도 없이 당연히 해오던 많은 일들이 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의 개념으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범죄로 인정되지만, 성경으로 보면 마음만 먹어도 행위와 관계없이 죄로 인정됩니다(마 5:21-23, 5:27-28).

마태복음 5 : 21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 : 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 :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 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욕만 하였어도 살인한 것이며,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은 죄가 솟아 오르는 분수임을 알고 내면적 죄를 인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단 없는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면적 죄가 성화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장성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내면적 죄를 육(Flesh), 혹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9 ; 마태복음 15:17-20)

왜 육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느냐 할 때 원죄의 오염의 전가 때문입니다.

2.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옛사람적인 것과 새사람적인 것의 분리

중생한 후 장성한 신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서는 영과 육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이며, 무엇이 육적인 것인 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모르면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 :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로 육(flesh)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첫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형질을 말하며, 육의 본질은 독립성과 무의탁성입니다.

요한일서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영과 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7]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either indeed can be.

로마서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 So then they that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중생을 한 신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영과 육의 갈등이 다가 옵니다.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identification 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48 무릇 흠에 속한 자는 저 흠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흠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이와 같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온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하늘의 형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구원론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